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22(1): 131~143, 2011

30-40대 기혼여성의 세탁습관과 세탁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 대 근 · 박 선 미*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A Study on Washing Habit and Washing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40s

Jun, Dae Geun · Park, Sun Mi*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
Dept. of Fashion Design, Konkuk University, Chu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 the current state of washing knowledge and washing habits ii) the effect of washing behaviors on washing satisfaction. A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married women in their 30's or 40's. A total of 210 response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ANOVA with PASW18.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ways in which women do the laundry was analyzed. 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40s usually do the laundry at home and are familiar with washing symbols and do not rely on common sense. Most of them like to rely on the washing machine guidelines for detergent concentration and use the right amoun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ey also adjust the washing machine setting effectively considering laundry time, water temperature and care label. Second, the groups divided by demographic variables showed meaningful results about washing knowledge. Particularly,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washing knowledge between housewives and career women. Third, the groups divided by the levels of washing habits showed suggestive results about washing satisfaction. The groups who have correct washing habits generally a indicated high degree of washing satisfaction. Finally, marketing implications for the businesses of laundry, laundromat and the manufacturers of washing machine are suggested.

Key words: washing knowledge, washing habit, washing satisfaction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대중들의 의류소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패션 브랜드들은 새로운 유행을 더 빠르고 빈번하게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패션상품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것이 이제는

접수일: 2011년 1월 31일 심사일: 2011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8일
Corresponding Author: Park, SunMi Tel: 82-10-3407-6473
e-mail: pjsunmi@paran.com

하나의 패션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디자인과 유통의 관점이 아니라 의복관리의 차원에서 패스트 패션을 살펴본다면, 더 많은 패션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의복의 사용이 아닌 구매와 폐기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복소비환경의 변화 속에서 성혜영과 이정숙(2010)은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드럼 세탁기의 대중화,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소비자의 의복관리 방식이 과거에 비하여 많은 차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기혼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1인 가정의 증가는 세탁시간의 감소, 대량 세탁물의 일거 세탁, 세탁업체의 이용 빈도 증가를 불러왔고, 다림, 살균, 항균, 건조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첨단의 가정용 의류관리 기기의 개발과 보급은 의복관리 방식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기능성 섬유와 스마트 의복의 개발로 인해 오염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의복이나 1회용 의복이 출현했고, 최초 구입한 의류상품의 오염이 심해져서 입기 곤란할 때까지만 착용하거나 특정한 계절, 단기간의 행사 등을 위해 의복을 지속적으로 입은 후에 세탁하지 않고 폐기하는 극단적인 의복관리행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로운 패션시스템이 도래하고 소비자의 의복관리 방식이 다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의복관리행동의 주요한 단계인 세탁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패션상품을 구매한 후에 일정 기간을 착용하다가 폐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세탁은 여전히 착용과 재착용을 연결하는 중요한 의복관리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의복관리란 의복을 취급하는 과정으로써 의생활의 실천이며 의생활 영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데(김성련・이순원 198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복관리의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탁과정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세탁지식과 세탁습관과 같은 세탁의 현황을 분석하고 세탁에 대한 만족도를 세탁방식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최순화와 김정숙(1997)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까지 손세탁이 세탁방식의 주종을 이루다가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생활방식,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세탁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세탁기의 도입과 세탁에 대한 인식변화에 기초하여 세탁에 관한 선행연구를 크게 세제사용, 세탁행동, 세탁실태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세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세탁기의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탁비누 대신 합성세제, 일반세제 대신 농축세제가 일반 가정에 보편화된 부분과 관련이 있다. 세제사용과 세탁에 관한 연구들은 세제인지도, 세제구매행동, 세제에 대한 소비자 태도 등을 주로 다루어 왔다(김병미 1984; 김성호 1991; 이혜진 1996). 또한 환경 보존 의식의 확대에 따른 세제의 소비량 감소 및 농축세제로의 급격한 전환과 1991년 이후 분말합성세제의 사용감소 추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강윤석(1995)의 연구와 같이 세제 사용과 환경오염의 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김정숙 등 1997; 김혜진・이동영 1991; 류덕환・이봉연 1999; 배정숙 1991; 유순 1993).

세탁과 관련된 두 번째 분야는 세탁방식의 변화, 세탁기의 도입과 관련된 의복관리의 한 개념으로 세탁행동에 관한 연구이다. 의류용 합성세제의 소비량은 국민소득 및 문화생활의 향상에 따른 세탁기의 보급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1993년의 국내 세탁기 보급률은 약 86% 수준이라고 하였다(강윤석 1995). 세탁기 보급률을 76.1%로 보고한 남상우(1988)의 연구와 비교할 때, 국내의 세탁기 보급률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세탁의 현대화와 함께 전통적인 손세탁이 주세탁방식에서 꾸준히 감소하였고, 반자동 세탁기에서 드럼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세탁기가 순차적으로 각 가정에 보급되면서 세탁기에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권수애(1980)는 세탁기 활용을 중심으로 세탁관리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남상우와 이재희(1988), 김선미와 이기영(1989)은 세탁기의 사용방법을 조사하였다. 세탁기 제작과 관련된 많은 연구 외에 세탁기 사용과 관련한 세탁행동과 세탁만족도 등의 소비자 연구가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등

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수행되었다(성혜영・이정숙 2010; 이수연・이정숙 2007; 이혜숙 등 2004).

세탁과 관련된 세 번째 연구 분야는 우리나라의 세탁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연구이다. 세탁이나 세탁기를 통한 연구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한 연구였다면, 실태조사 연구는 이러한 대상을 포괄하여 소비자의 현 상황을 분석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세탁이 현대생활에서 단순한 오구의 제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이래로, 세탁과 관련된 상품과 소비재가 주요한 소비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세탁의 주체인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세탁지식, 세탁습관, 세탁관리 등의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고순영 등 2007; 남상우 1988; 배정숙 등 2001; 유혜경 등 1996; 최순화・김정숙 1997; 최해운 등 2002). 이 외에도 취급주의표시를 중심으로 세탁 실태와 관련된 분야가 소재와 세탁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박광희 1995; 박찬애 1989; 배순화・이미식 1994; 최혜영・이정순 2001; 홍경희・이윤정 2007; 홍지명・신혜원 1998).

세탁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세제나 세탁기의 활용에 한정된 연구보다는 특정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다 심도 있게 세탁행동을 분석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탁환경을 고려하여 세탁지식, 세탁습관, 세탁만족도 등을 소비자 특성이나 다양해진 세탁방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 종합적인 소비자의 세탁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관리의 일환으로 세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30-40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세탁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의 현황을 살펴본 후에 세탁에 관한 소비자의 지식수준과 세탁습관, 소비자의 세탁만족도를 확인하여 세탁과 관련한 내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세탁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확인하여 세탁관련업체에 마케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의 구성

연구를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지는 세탁지식, 세탁습관, 세탁만족도 그리고 인구통계적 변수에 관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세탁지식에 관한 문항은 최혜영과 이정순(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의류학 전공자 3인의 검증을 거쳐서 세탁기호의 식별에 관한 9문항, 세탁상식에 관한 8문항을 선정하였다. 세탁습관에 대한 문항은 김선미와 이기영(1989)의 연구를 참고하여 세제사용, 세탁빈도, 세탁온도, 세탁시간 등에 관한 8문항을 개발하였다. 세탁만족도는 손세탁,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드라이클리닝 등의 4가지 세탁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대전 등의 지역에서 30-40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찜질방 등에서 편의 표집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258부를 수거하였으며 불완전하거나 분석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료 48부를 제외한 210부의 설문지를 최종적인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PASW 18.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분산분석, T검정 등의 통계기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구성하였다.

1. 30-40대 기혼 여성들의 세탁지식과 세탁습관을 통해 세탁 실태를 확인한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에 세탁지식의 차이를 비교한다.
3. 세탁습관에 따른 집단 간에 세탁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4. 표본의 특성

광범위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할 때, 세탁환경 변화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30-40대 기혼 여성에 대한 연구로 표본을 한정하였고, 30-40대 전, 후반 집단 내에서 연령이 적절히 분포하였다. 이들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가장 많아서 과반수를 넘는 54.8%를 나타냈고, 주거형태에서는 아파트가 56.7%, 연립주택이 22.8%로 공동주거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비율은 대략 3:7로 나타났고, 가정의 총수입은 300만원-700만원 사이에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함께 사는 가족수는 4인이 53.8%로 과반수를 넘었다. 주세탁장소의 경우에는 가정이 91%로 압도적이었고, 주세탁방식은 일반세탁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3/4이상으로 나타났다.

Ⅲ. 결과 및 논의

1. 의복세탁의 현황

30-40대 여성들의 세탁 실태를 확인하고자 세탁장소, 세탁지식, 세탁습관, 세탁기의 활용과 세탁평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1) 세탁장소

Table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30-40대 기혼여성들이 주로 세탁하는 공간은 가정(91.0%)으로 나타나서 세탁소(8.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서로 다른 세탁 장소를 선택한 두 집단은 그 선택 사유에서도 Table 2와 같은 차이를 보였다. 세탁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부분과 세탁으로 인한 손상을 염려하는 부분에서는 세탁소를 선택한 집단과 가정을 선택한 집단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세탁소를 주된 세탁장소로 선택한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세탁하는 소비자들 보다 깨끗한 세탁효과와 세탁시간의 절약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탁소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세탁시간을 줄이거나 더 깨끗한 세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탁시간 자체가 부족하고 의류상품이 상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변화하는 생활방식 속에서 향후 세탁소나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Item	Contents	Freq.	%	Item	Contents	Freq.	%
Age	30-34	49	23.3	Family member	2persons	12	5.7
	35-39	46	21.9		3persons	44	21.0
	40-44	53	25.2		4persons	113	53.8
	45-49	62	29.6		more than 5persons	41	19.5
Education	high school	116	54.8	Job	housewife	71	33.8
	university	83	39.5		administrative support	33	15.7
	graduate school	6	2.9		professional	67	31.9
	etc	5	2.4		technicians & etc	39	18.6
Type of living quarters	apartment	119	56.7	Monthly average income	under 3,000,000	56	26.7
	townhouse	48	22.8		3,000,000-4,000,000	41	19.5
	detached house	37	17.6		4,000,000-5,000,000	46	21.9
	etc	6	2.9		5,000,000-7,000,000	47	22.4
Main washing place	home	191	91.0		over 7,000,000	20	9.5
	laundry shop	17	8.0	Main washing type	pulsator-type washing machine	152	75.6
	laundromat	1	0.5		drum-type washing machine	46	22.9
	etc	1	0.5		hand wash	3	1.5

Table 2. Differences of motivation between the groups by washing place

Motivation / Group	Shortage of washing time	Clean washing effect	Save of washing time	Prevention of clothing damage
Home(n=191)	1.94	3.57	3.12	3.16
Laundry shop(n=17)	3.29	3.65	3.41	4.35
t	3.855***	.237	.722	3.213**

* p<.05, ** p<.01, *** p<.001

빨래방 등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세탁위탁업체들은 이러한 소비자 인식을 서비스 제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세탁지식

올바른 세탁을 하기 위한 세탁지식의 수준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물세탁, 표백제, 다리미질, 건조방법 등에 대한 9가지 세탁기호에 대한 지식을 확인한 결과, 9점 기준에서 평균 6.92점으로 세탁기호에 대한 30-40대 기혼여성의 이해도는 76.9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났다. 9가지 기호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6.7%, 반면에 5가지 이하도 15.2%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유사한 세탁기호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조사한 최혜영・이정순(2001)의 연구에서는 가정주부들의 경우에 16개 국내세탁기호에 대한 인지도에서 70.9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서 주부들의 세탁기호에 대한 지식수준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페인트, 볼펜 자국의 제거, 물빠짐과 변색 처리, 와이셔츠 건조 등에 대한 8가지 세탁상식에 대한 지식 수준을 측정한 결과, 8점 기준에서 평균 4.24점으로 측정되었다. 세탁상식에 대한 기혼여성의 이해도는 53.0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났다. 8가지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6.7%, 반면에 2가지 이하도 19.0%로 나타났다. 따라서 30-40대 기혼여성들은 취급주의와 관련한 세탁기호를 세탁상식에 비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세탁습관

30-40대 기혼여성들의 세탁습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Table 4에서 8가지 세탁습관에 대한 동의 수준을 각각 '하' 에서 '상' 까지 5단계로 확인하였다. 먼저 세탁을 세탁기에 의존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율을 살펴본 결과, 의존도 '중하', '하'의 비율은 29%, 의존도 '중상'과 '상' 의 비율은 55.2%로 나타나서 세탁기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적정량의 세제 사용에 대한 동의율은 '중상' 이상이 56.2%로 '중하' 이하의 응답 13.8%의 약 4배로 나타났다. 경험에 따른 세제농도 조절에 대한 동의여부에서도 '중상' 이상의 비율은 66.6%였고, 약 2/3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환경을 고려하여 세제의 적정량과 농도를 인식하여 세탁 시 스스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은경(1995)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의류용 세제사용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

Table 3. Levels of washing knowledge

Knowledge / Point	Mean	0	1	2	3	4	5	6	7	8	9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Washing symbol	6.92	2 1.0	0 0.0	2 1.0	6 2.9	7 3.3	15 7.1	28 13.3	54 25.7	82 39.0	14 6.7
Common sense for washing	4.24	7 3.3	9 4.3	24 11.4	42 20.0	41 19.5	22 10.5	36 17.1	15 7.1	14 6.7	.

Table 4. Current state of washing habits

Frequency distribution / Washing habit	Low freq.(%)	Mid-low freq.(%)	Average freq.(%)	Mid-high freq.(%)	High freq.(%)
Dependence of washing machine	46(21.9)	15(7.1)	33(15.8)	50(23.8)	66(31.4)
Right detergent usage for the environment	13(6.2)	16(7.6)	63(30.0)	53(25.2)	65(31.0)
Right control of detergent concentration by experience	17(8.1)	10(4.8)	43(20.5)	66(31.4)	74(35.2)
Careful reading of care label before washing	17(8.1)	36(17.1)	32(15.3)	49(23.3)	76(36.2)
Right control of wash time & temperature	38(18.1)	22(10.5)	55(26.2)	24(11.4)	71(33.8)
Right cognition & usage of washing course	13(6.2)	20(9.5)	51(24.3)	23(11.0)	103(49.0)
Usage of washing net for fine clothing	16(7.6)	15(7.1)	34(16.3)	42(20.0)	103(49.0)
Accumulation of laundry before washing	15(7.1)	4(1.9)	22(10.5)	47(22.4)	122(58.1)

한다고 하였으나, 1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세제와 세탁방식에 익숙해진 결과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취급주의표시의 확인여부를 살펴본 결과, 59.6%('중상' 이상 응답율)의 여성들이 이를 충실히 확인하고 있었고, 45.2%('중상' 이상 응답율)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옷감에 따라 물의 온도와 시간을 조절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섬유, 의류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의류소재가 등장하고, 소재혼용율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세탁관리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탁기 코스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용하는 여성들이 60%('중상' 이상 응답율)에 달하였고, 섬세한 의류는 그물망에 넣어 세탁한다고 응답한 여성들도 69%('중상' 이상 응답율)에 이르러서 세탁기구나 세탁관련 도구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탁물이 적당히 모여야 세탁을 하는 비율이 80.5%('중상' 이상 응답율)에 달하여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정기적으로 세탁하기 보다는 정량적인 평가에 따른 비주기적 세탁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독신 미혼자와 기혼자의 세탁기 사용행태를 분석한 윤형건(2006)의 연구에서도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세탁물을 모아서 세탁하기를 원하고, 이불 등은 단일 세탁물이라도 용량이 크다는 이유로 독신의 미혼과 기혼 소비자 모두 대용량의 세탁기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독신가구의 증가에 따라 많은 가전제품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라이프스타일과 세탁습관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세탁물을 모아서 세탁하고 있으므로 세탁기 제조사에서는 다른 가전제품들과 달리 세탁기의 세탁용량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세탁기 사용과 평가

Table 1의 주세탁방식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일반세탁기의 사용율(75.6%)이 드럼세탁기의 사용율(22.9%) 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이수연과 이정숙(2007)의 연구에서는 일반세탁기(66.5%)와 드럼세탁기(33.5%)의 사용 비율을 보였고, 성혜영과 이정숙(2010)의 연구에서는 일반세탁기(60.8%)와 드럼세탁기(39.2%)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앞선 두 연구에서는 드럼세탁기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20대가 표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와는 사용 비율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세탁기를 이용한 세탁 평가를 살펴본 내용은 Table 5와 같다. 세척력이 떨어진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다소 그렇지 않다' 이하=32.9%)과 동의하는 비율('다소 그렇다' 이상=32.8%)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헹굼이 잘 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다소 그렇지 않다' 이하=33.3%)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다소 그렇다' 이상=45.7%)이 높았다. 즉, 의류제

Table 5. Current state of washing evaluation

Washing evaluation \ Agree level	Disagree freq.(%)	Disagree somewhat freq.(%)	Neutral freq.(%)	Agree somewhat freq.(%)	Agree freq.(%)
Weak cleaning power of washing machine	42(20.0)	27(12.9)	72(34.3)	48(22.8)	21(10.0)
Defective rinse of the laundry	45(21.4)	25(11.9)	44(21.0)	49(23.3)	47(22.4)
Displeasure from wearing clothes right after wash & dry	62(29.5)	41(19.5)	64(30.5)	30(14.3)	13(6.2)
Economic loss such as waste of water	24(11.4)	40(19.0)	45(21.5)	57(27.1)	44(21.0)

Table 6. Differences of washing evaluation between the groups by the type of washing machine

Group \ Washing evaluation	Weak cleaning power of washing machine	Defective rinse of the laundry	Displeasure of wearing clothes after wash & dry	Economic loss such as waste of water
Pulsator-type Washing machine(n=152)	2.93	2.48	3.24	3.29
Drum-type washing machine(n=46)	2.74	2.41	2.70	3.13
t	.855	.327	2.215*	.717

* p<.05, ** p<.01, *** p<.001

품으로부터 오구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만족과 불만족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헹굼물의 탁도와 잔존 거품 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건조 후 그대로 착용 시에 불쾌하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다소 그렇지 않다’ 이하=49.0%)에 비해 불만족(‘다소 그렇다’ 이상=20.5%)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서 탈수에 이은 건조과정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헹굼은 세탁과정이지만 탈수의 결과물인 건조에 대해서는 세탁 외의 과정으로 평가하여 그 불만족도가 직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물낭비와 같이 세탁 후 경제적 손실에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다소 그렇지 않다’ 이하=30.4%)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다소 그렇다’ 이상=48.1%)이 커서 여전히 세탁기를 통한 세탁에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평가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혜영・이정숙(2010)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구매율이 증가하고 있는 드럼세탁기는 상대적으로 초기 구매비용이 높고 세탁시간이 길며 전기료가 비싼 반면에 물소비량은 일반세탁기의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세탁기의 주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에서 물낭비를 주요한 경제적 손실의 이유로 볼 수 있고, 드럼세탁기 주사용자의 경우에는 전기료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5) 세탁기종에 따른 세탁평가

응답자의 98.5%가 세탁할 때 세탁기를 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Table 1에서 확인하였는데, 일반세탁기의 사용자(152명)와 드럼세탁기의 사용자(46명)의 세탁평가를 비교한 내용은 다음의 Table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과 불만족의 수준이 유사했던 세척력이나 불만족 수준이 높았던 헹굼에 있어서는 일반세탁기와 드럼세탁기의 사용자 간의 평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세척력과 헹굼에서 두 종류의 세탁기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탁 후 건조의 문제에서는 드럼세탁기의 사용자의 불만족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세

탁기의 경우, 건조기능이 전무하나 드럼세탁기의 경우에는 세탁기 자체에 건조기능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 날씨와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물낭비와 같은 경제적 손실과 관련하여 두 세탁기 사용자의 평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세탁지식 비교

30-40대 여성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들의 세탁지식을 확인하고자 세탁기호에 대한 지식과 세탁상식을 각각 살펴보았다.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서 유형화된 집단 간의 세탁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세탁기호에 대한 지식에서는 40대 후반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다양해진 의류소재와 혼용율에 따라서 세탁기호가 다양해지면서 많이 활용되는 소수의 세탁기호에 익숙한 40대 후반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세탁상식의 경우에는 40대 전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세탁상식은 세탁경험과 세탁전반에 대한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세탁기호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고 세탁경력도 축적된 40대 전반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0대 후반의 경우, 세탁기호에서와 같이 세탁에 대한 경험은 축적하였더라도 반복적이고 한정적인 세탁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세탁상식에 강하고, 근래에 TV 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부각된 세탁상식 등에는 취약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배정숙 등(2001)의 연구에서 40대의 경우, 자녀양육과 집안가사일 등 가족들의 의복을 관리하는 일이 많은 연령층이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세탁 및 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40세 이전과 이후 집단 간의 의류관리행동을 비교한 성혜영과 이정숙(2010)의 연구에서는 40세 이후 집단이 라벨확인과 세탁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에 세탁경험과 세탁지식의 차이를 확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의복관리시 취급주의표시에 대한 소비자인지도를 살펴본 안순태(2001)의 연구에서는 20대에서 40대까지 취급주의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나 50대에는 감소

Table 7. Differences of washing knowledge among the groups by demographic variables

Group \ Washing knowledge		Washing symbol	Common sense for washing
Age	early thirties(n=49)	7.14A	3.71B
	late thirties(n=46)	7.28A	4.17B
	early forties(n=53)	7.13A	4.98A
	late forties(n=62)	6.29B	4.06B
F		4.914**	3.852**
Education	under high school(n=116)	6.73	4.29
	over university(n=89)	7.18	4.20
t		1.998*	.318
Job	housewife(n=71)	7.19	4.06
	career woman(n=139)	6.78	4.33
t		1.816	.936
washing place	home(n=191)	7.01	4.36
	laundry shop(n=17)	5.94	2.71
t		1.689	3.322***

* p<.05, ** p<.01, *** p<.001

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대략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교, 검토해 볼 때, 세탁지식과 연령의 관계는 포물선을 그리는데 대략적인 하락시점을 40대 후반-50대 초반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집단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세탁기호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높았고, 세탁상식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대학교육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지식이 세탁기호에 대한 인지능력을 높였으나 세탁경험과 비교적 관련이 큰 세탁상식을 향상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레이블의 취급주의사항을 인지하고 확인한다는 홍경희와 이윤정(2007)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업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업주부와 직장여성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를 측정한 세탁인지도는 직업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류덕환과 이봉연(199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남상우(1988)의 연구에서는 세제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 결과는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순화와 이미식(1994)의 연구에서도 세탁, 표백, 건조 방법 등에서 직업유무는 어떠한 차이도 가져오지 못했다. 세탁기의 대중적 보급이 이루어진 이래로 여성의 직업유무와 세탁지식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직업여부에 따라서 세탁에 대한 관여나 세탁시간, 세탁지식 등이 영향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탁장소에 따른 집단 간에는 가정에서 주로 세탁하는 집단의 세탁상식이 유의하게 높았고, 세탁기호도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탁에 대한 관여와 경험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세탁습관에 따른 세탁방법별 세탁만족도 비교

소비자의 세탁습관의 수준에 따라서 유형화된 집단 간에 세탁방법별 세탁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먼저 세탁기 의존에 대한 동의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세탁방법별 세탁만족도를 각각 살펴보면, 세탁기 의존도 중간 집단의 만족도가 손세탁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적정 수준으로 세탁기를 활용하는 집단의 경우, 세탁물에 따라 적절하게 선별하여 손세탁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을 고려하여 세제량을 준수하는 정도에 따른 집단에서는 규정을 잘 준수하는 집단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류덕환과 이봉연(1999)의 연구에서도 주부들의 환경오염 관심도, 세탁행동, 세탁인지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세제량을 준수하는 집단일수록 합리적인 세탁행동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만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경험에 따라 세제농도를 조절하는 정도에 따른 집단에서는 경험에 대한 의존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경험에 따른 세제 조절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세탁경험의 수준을 의미하고 세탁경험이 많을수록 세탁을 잘 하기 때문에 세탁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옷감에 따라 세탁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정도에 따른 집단에서는 조절을 잘하는 집단일수록 전반적인 세탁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세탁경험에 따른 세탁숙련도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고, 드라이클리닝의 경우에는 자신의 세탁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세탁소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취급주의 표시를 필독하는 정도에 따른 집단에서는 세탁방법별 세탁만족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드라이클리닝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취급주의 표시를 읽지 않는 집단일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최혜영과 이정순(2001)의 투습방수포 세탁에 관한 연구에서 세탁지식이 낮은 비전문인의 경우 드라이클리닝을 막연하게 적합한 세탁방법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취급주의 표시내역을 잘 모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수록 드라이클리닝의 적정효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세탁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탁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세탁코스의 인식과 사용에 따라 분류한 집단에서는 세탁방법별 세탁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세탁 시 그물망의 활용 여부에 따른 집단에서는 그물망 사용의 상, 하 집단이 손세탁에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세한 의류를 그물망으로 세탁하는 비중이 높거나 낮은 집단 모두 섬세한 의류의 세탁에 대한 관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중을 기해서 손세탁을 하여 그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최순화와 김정숙(1997)의 연구에서 세탁기를

Table 8. Differences of washing satisfaction among the groups by washing habits

Group	Washing type	Hand wash	Pulsator-type washing machine	Drum-type washing machine	Dry cleaning
Dependence of washing machine	low(n=61)	3.98B	3.33	3.20	3.40
	mid(n=31)	4.51A	3.52	3.65	3.68
	high(n=118)	3.93B	3.36	3.52	3.53
F		3.212*	.412	2.364	.614
Right detergent usage for the environment	low(n=29)	3.98B	2.79B	3.00B	3.31
	mid(n=63)	4.00A	3.27A	3.46A	3.62
	high(n=118)	4.19A	3.57A	3.56A	3.51
F		4.293*	9.542***	3.224*	.707
Right control of detergent concentration by experience	low(n=27)	3.26B	2.96B	3.00	3.56
	mid(n=43)	3.93A	3.39A	3.48	3.73
	high(n=140)	4.22A	3.45A	3.53	3.45
F		8.032***	3.244*	2.710	.968
Right control of wash time & temperature	low(n=60)	3.95	3.25	3.16B	3.45B
	mid(n=55)	3.93	3.22	3.38AB	3.87A
	high(n=95)	4.16	3.54	3.66A	3.36B
F		.872	2.907	4.197*	3.416*
Careful reading of care label before washing	low(n=53)	4.04	3.22	3.60	3.84A
	mid(n=32)	3.66	3.16	3.10	3.59AB
	high(n=125)	4.14	3.49	3.47	3.36B
F		2.066	2.580	2.156	3.219*
Right cognition & usage of washing course	low(n=33)	3.91	3.52	3.24	3.76
	mid(n=51)	3.80	3.27	3.49	3.67
	high(n=126)	4.17	3.38	3.49	3.39
F		1.909	.681	.729	1.867
Usage of washing net for fine clothing	low(n=49)	4.22A	3.36	3.39	3.77
	mid(n=32)	3.38B	3.31	3.23	3.38
	high(n=129)	4.13A	3.40	3.52	3.46
F		6.187**	.112	.956	1.465
Accumulation of laundry before washing	low(n=41)	3.66	3.08	3.33	3.50
	high(n=169)	4.13	3.45	3.48	3.52
t		2.285*	2.319*	.745	.102

* p<.05, ** p<.01, *** p<.001

사용하는 가정에서도 블라우스, 스타킹, 모 혹은 실크제품 등과 같이 손상가기 쉬운 제품은 주로 손빨래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세탁기에서 처리할 때 세탁결과에 만족하기 어려운 제품을 손세탁할 때 세탁만족도 또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세탁물을 모아서 세탁하는가 여부에 따른 집단에서는 일정량을 모아서 세탁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손세탁과 일반세탁기 사용시 세탁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탁물을 일정량 모았을 때, 세탁기용과 손세탁용으로 세탁물을 분류해서 세탁하기가 용이하고 그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탁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세탁습관과 세탁만족도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볼 때, 드라이클리닝과 같이 세탁을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환경을 고려하여 세제투입량의 규정을 준수하거나 옷감에 따라 세탁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세탁습관을 잘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 집단이 세탁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30-4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세탁지식, 세탁습관, 세탁만족도 등의 내용에 대해 소비자 특성과 세탁의 종류에 따라 집단을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세탁장소, 세탁지식, 세탁습관, 세탁기의 활용상태를 통해 종합적인 세탁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세탁장소는 가정(91.0%)과 세탁소(8.0%)로 나타나서 기혼여성들의 빨래방(0.5%) 활용도는 낮았다. 또한 세탁소를 주로 활용하는 집단은 부족한 세탁시간을 대신하고 의류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지식과 관련하여 의류소재와 혼용률의 다양화에 따라 세탁기호를 적절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탁상식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습관의 경우, 세탁기 의존도가 높으나 환경을 고려하여 세제의 양과 농도를 잘 조절하였으며, 취급주의표시에 주의하여 온도와 세탁시간을 조절하고 세탁기 코스를 적절히 활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섬세한 의류는 망에 넣어 세탁하고, 세탁물은 적당히 모아서 세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탁평가와 관련하여 세척력, 건조보다는 헹굼에 대한 불만족이 크고, 물낭비와 같은 경제적 손실에 불만이 있었다. 한편 일반세탁기와 다른 세탁기능에 대한 평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드럼세탁기의 건조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 교육, 직업, 세탁장소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집단 간의 세탁지식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세탁기호에 대한 지식은 기존의 주요 세탁기호에 익숙한 40대 후반 집단이 낮게 나타났고, 세탁상식에 있어서는 세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된 40대 전반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의 집단이 대학교육의 종합적 지식을 통해 세탁기호에 대한 보다 높은 인지능력을 보였고, 세탁경험과 관련이 큰 세탁상식에서는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한편, 직업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세탁지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세탁장소에 따른 집단 간에서는 가정에서 주로 세탁하는 집단이 세탁에 대한 관여나 경험이 많아서 세탁지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세탁습관의 수준에 따른 세탁방법별 세탁만족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세탁기 의존정도가 적절한 집단이 손세탁에서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환경을 고려하여 세제량을 잘 준수하는 집단, 경험에 따라 세제농도를 잘 조절하는 집단, 옷감에 따라 세탁온도와 시간을 잘 조절하는 집단의 세탁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취급주의 표시를 필독하는 정도에 따른 집단, 세탁코스의 인식과 사용에 따라 분류한 집단에서는 세탁방법별 세탁만족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드라이클리닝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취급주의 표시를 읽지 않는 집단일수록 세탁만족도가 높았다. 세탁 시 그물망의 활용 여부에 따른 집단에서는 그물망 사용의

상, 하 집단이 손세탁에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물을 모아서 세탁하는가 여부에 따른 집단에서는 일정량을 모아서 세탁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손세탁과 일반세탁기 사용시 세탁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기한 연구결과와 같이 30-40대 기혼여성들은 이전에 비해 향상된 세탁지식을 가지고 보다 다변화한 생활환경에서 성숙한 환경인식과 능률화된 세탁습관 등을 통해 세탁환경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세탁현황과 세탁만족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세탁관련업계에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세탁기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1인 가정의 증가세에 따라 가전의 소형화가 심화되더라도 타 가전제품과 달리 세탁물을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하는 소비자들의 세탁습관을 고려해서 세탁용량을 중대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의 높은 세탁지식 수준과 환경, 경제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합리적인 세탁습관 등을 고려하여 낭비요소를 줄이고 세척력보다는 헹굼력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다기능을 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서 세탁기능 이상의 건조, 살균, 탈취 등의 부가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빨래방과 같이 비용은 저렴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세탁하는 시간을 요구하는 세탁업체는 30-40대 기혼여성들이 아닌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성을 중시하는 다른 집단을 목표 고객으로 설정하거나 세탁에 본인이 직접 관여되는 시간을 줄이고 의류제품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세탁소와 같은 세탁대행업체들은 세탁시간이 부족하고 제품손상을 최소화하려는 소비자의 세탁소 이용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단지 광고, 옥외광고 등에 적절한 광고문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세탁습관과 관련하여 개발하여 사용한 문항들은 후속연구에서 좀 더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표본수집에 있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된 성별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향후에는 남성과 여성,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세탁현황을 고찰하여 세탁관련 분야의 연구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윤석(1995) 국내 의류용 세제의 최근 동향. 한국의류학회지 19(1), 161-169.

고순영・김차현・박진희・이현주・이지현・이규혜(2007) 니트의류제품의 세탁 및 관리현황조사. 한국의류학회지 31(9/10), 1364-1372.

권수애(1980) 가정의 세탁기 활용을 중심으로 한 세탁관리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미(1984) 주부들의 세제에 대한 인지도 및 사용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학가정학회지 22(4), 121-129.

김선미・이기영(1989) 가계의 세탁기사용방식과 사용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95-107.

김성련・이순원(1986) 피복관리학. 서울: 교문사.

김성호(1991) 세탁세제의 소비자 구매행동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숙・최순화・권헌선(1997) 가정용 세제 및 유연제의 사용실태조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4(3), 45-57.

김혜진・이동영(1991) 합성세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보고. 서울여자대학교 농촌발전연구총서 16, 31-37.

남상우(1988) 세제의 사용 및 세탁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가정문화논총 2, 107-120.

남상우・이재희(1988) 도시주부의 세탁기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가정문화논총 2, 121-134.

류덕환・이봉연(1999) 주부들의 일반적 배경변인과 세탁행동, 세탁인지도, 환경오염 관심도와의 관계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109-124.

박광희(1995) 의류제품에 부착된 care label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59-166.

박찬애(1989) 시판 의류제품의 품질표시 실태와 소비자 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순화・이미식(1994) 섬유제품의 취급방법과 관련 도니 레이블에 대한 연구 - 소비자인식 및 세탁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4), 480-489.

배정숙(1991) 최근 세제동향과 합성세제의 안전성 및 환경오염. 가정생활연구 6, 107-121.

배정숙・조은영・박은희(2001) 성인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의 세탁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6), 1-13.

성혜영・이정숙(2010) 세탁기 형태가 의류관리행동 및 소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3), 389-397.

안순태(2001) 의복관리시 취급주의표시에 대한 소비자인지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순(1993) 가정생활에서의 환경오염에 대한 주부들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실태분석.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혜경・오경화・조용진(2006) 국산 세탁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탁실태조사 및 실험연구(1). 한국의류학회지 20(5), 893-904.
윤형건(2006) 독신 미혼과 기혼의 세탁기 사용행태 비교분석. 디자인학연구 19(1), 263-272.
이수연・이정숙(2007) 영, 유아복 세탁에 고나한 소비자 행동 연구-세탁기 유형별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31(8), 1231-1239.
이은경(1995) 환경오염과 합성세제에 대한 소비생활. 한국생활과학회지 4(1), 123-133.
이혜숙・이정규・김성교・김명자・이명자(2004) 대학생들의 세탁행동 실태조사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6(3), 147-161.
이혜진(1996) 국내의류용 세제의 소비자 태도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순화・김정숙(1997) 세탁행동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생활과학회지 4(3), 59-71.
최해운・정찬진・박명자(2002) 의류 중의 미생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과 세탁습관 실태조사 분석. 복식문화연구 10(6), 781-792.
최혜영・이정순(2001) 투습방수포 제품 취급주의표시 레이블의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조사. 한국생활과학회지 10(4), 333-347.
홍경희・이윤정(2007). 유, 아동복의 취급상 주의사항 레이블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 조사. 한국의류학회지 31(5), 680-691.
홍지명・신혜원(1998) 청바지의 취급상 주의표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6), 716-724.